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7차	일자	2021.06.28. 18:30	장소	당일 안내
----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0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X	0	X	0	0	10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농활 대체 행사로 충주 복숭아즙 공동구매 시작.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자체 동아리 개설해서 모집 중. 304관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 사업 진행 계획중.
의과대학	
인문대학	강의요구안, 단위요구안 조사중. 금요일에 임시 입학대회 예정.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특이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 2 보고안건

###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2분기 간담회 준비 중
	(일상복지) 기말고사 이벤트 추첨 완료
	(연대사업) 외부 제휴 진행 중
산하위원회	(문화위) 축제 상품 포장 후 발송 예정
	(안복위) 사물함 철거/관리요원 선발예정 의혈규찰대 선발예정
	(장인위) (성평위) 인권교육 이수처리 점검 및 시정 중

총: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질의 해주시기 바란다. 없으신걸로 하고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다.

### 3 논의안건

#### 1. 장학제도 개정 관련

-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장학제도 개정 중운위 의견문 제출

총: 우선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엑셀파일 형식으로 공유해드린 바가 있다. 저희가 정리한 수치 이미지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다. 문항 1번에 1번 답변의 비율은 21.4%, 2번 답변은 8.47%, 3번 답변은 7.8%이다. 현행 유지와 관련된 의견은 62.33%이다. 문항 2번에 1번 답변은 22.3%, 2번 답변은 6.62%, 3번 답변은 13.4%, 현행유지는 57.68%이다. 문항 3이다. 복지장학금 확대 관련 비율은 31.72%, 근로장학금 지급 인상 16.12%, 현행 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52.16%였다. 문항 4번이다. 성적 + 가계곤란장학금의 비율은 24.75%였고, 성적 + 비교과장학금의 비율은 28.38%이다. 현행 유지와 관련된 의견은 46.87%이다. 우선 해당 결과지는 학생지원팀에 전달한 상태이고 이 결과를 총장님께 전달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적장학금을 3%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아직 한 번 더 재고를 한다 라고는 전달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총장단 측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기 전에 이 결과를 토대로 중운위 차원에서 의견문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고 그 입장문, 그 의견문에 특히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일단은 인문대에서 이 결과를 좀 받았을 때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3%로 축소하는 데 대해인데 일단은 지금 가장 기타의견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해서 지금 기타의견이 많이 나와서 사실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했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갑작스럽게 이게 사실은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학우분들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 설문조사를 받아들였을 거고 물론 중운위는 1달 ~ 2,3주 정도의 논의 시간이 있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받아들일때도 갑작스러웠던 점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도 아예 3%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크게 있지 않아서 그 설문조사에 어떠한 문항이 담길지만 논의를 해서 일단은 이 장학제도의 논의의 폭을 좀 중운위, 단운위, 그 다음에 학과 학생회까지 좀 넓혀서 의견을 수렴해야 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결론은 9,10분위의 보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10에서 3으로 바로가기 보다는 점진적인 제도개혁과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6월에 학칙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6월인지 7월인지

총: 7,8월중에 있다.

인문.정: 네 7,8월 중에 학칙개정이 있는데 7,8월 중에 학칙개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희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보완책과 점진적 제도개혁안을 마련해놓고 내년도에 완전히 학칙개정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 게 저희 인문대쪽의 생각이다. 어찌했던 간에 지금 결과치를 보면 1,2,3번이 장학제도 변경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고 기타의견이 반대하는 건데 이게 되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60:40에서 55:45 정도로 갈린다. 학우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40%가 어쨌든 간에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진다는 게 저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린다. 그리고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

간호.정: 간호대 학생회장 질의 있다. 이 의견문 제출이 학교에 중운위 의견을 제출한다는 뜻인지?

총: 네 맞다.

부총: 총장단하고 기획처에 보낼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다.

인문.정: 혹시 학지처에서도 이 결과를 받아보셨다고 했다. 학지처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신 말이 있는지?

총: 따로 없다. 총장단에게 보고를 했고 총장단에서도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뉘앙스로 전달한 바가 있다.

인문.정: 학교측도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한 수치가 나온 것인지?

총: 예상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서부터 논의가 되었고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모르겠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는 것 같다.

경경.정: 경경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대 입장에 동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학교 측에서 학우분들께 사전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저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지금 나온 의견이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혁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주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사실 저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단위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왔었냐면 이게 진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학우분들의 의견을 어쨌든 수렴을 했다. 근데 학교 측과 학생간의 그냥 이 제도에 대한 간담회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실현가능성이 일단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라는 포맷을 통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도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제도 개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저희가 단순히 설명만 들은 거다 지난 번에. 그런데 이걸 진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봤지만 단운위, 학과학생회까지 의견수렴도 그렇게 막 다 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보니까 좀 이러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총: 저는 취지는 좋으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학생 개개인간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저희 대표자가 존재하는 목적도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 저희도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아직 총장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저희에게도 시간은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온 의견 세 가지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점진적인 제도 개혁, 그리고 학교 본부가 직접 충분한 설명을 해라 이런 세 가지 의견으로 좀 종합이 된 것 같은데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금일 회의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의견을 내고 싶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학교 측에서 언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지는 몰라서 일단 되도록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써서 일차

적으로 보낼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본부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정확히 어떤 내용을 설명하길 바라는건지 여쭙봐도 되는지?

경경.정: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공개한 자료들을 학우분들께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학우분들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왜 성적장학금을 축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공금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해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정확히 이 장학제도 개선에 대한 목적을 풀어서 학우분들께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부총: 제가 여쭙본 거는 어쨌든 저희가 열람한 자료가 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설문조사 상에서도 해당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이 됐고 그 이유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설문조사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부 측에서 추가적으로 그 제도 개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다.

경경.정: 저는 좀 다른 게 제도 개선에서 목적 중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향후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소득분위 양극화 해결 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학우분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으나 두 번째는 학우분들이 도대체 이게 왜 학교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왜 그러한 목적을 썼는지를 좀 말을 해야할 것 같다.

간호.정: 간호대 학생회장 의견 내겠다. 일단 설문조사 참여자가 17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학생들의 대표적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중 50% 이상 이 현행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일단 학교 측에 중운위 의견을 낼 때 설문조사에 이런 우려가 다소 학생들로부터 발생했다를 전달해서 고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문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숫자를 따졌을 때는 중운위 주장의 근거로는 어렵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고 또한 이 문제가 자체가 학교의 정책이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중운위 의견문을 제출할 때는 학생들의 우려사항을 수합하고 정리를 해서 분명히 고려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사과.정: 혹시 안성캠퍼스에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 궁금하다.

총: 아직 결과서는 받지 못했다. 안성캠퍼스는 저희보다 더 기한을 연장을 했기도 했고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부총: 설명을 드리면 서울캠퍼스는 일단 설문을 마무리 했고 17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안성캠퍼스는 오늘 주무부서에서 전해 듣기로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서 전체적인 영향력이 클 것 같지는 않다 안성캠퍼스 설문조사 결과가.

사과.정: 네 알겠다.

부총: 그리고 아까 제가 경경대에서 말씀해주신 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다.

경경.정: 네.

인문.정: 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인문.정: 어쨌든 학교 측에서 재고는 해본다고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7,8월에 학칙 개정이고, 학교 측에서 재고를 해봤는데도, 3%로 줄이는 것을 오케이를 해서 7,8월에 3%로 줄이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 뒤가 저희는 어쨌든 간에 7%는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미리 (이후 음량이 작아짐)

총: 7%에 대한 장학 제도의 특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학생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

부총: 아마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것이, 기존의 9,10분위가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기준이 성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줄인다고 했을 때 보완책이라고 해도, 성적 장학금이 아니면 힘들 것 같은 하지만, 타 학교를 보면 프로젝트 장학금이라든지 활동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총: 그리고 자기계발 장학금도 있겠고 비교과 장학금 등이 있다.

부총: 아무래도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하면 소득분위나 여타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학금이 해당이 될 것 같다.

총: 사실 9,10분위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한정 지어서 줄 수는 없고,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나눠지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

부총: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7,8월 내 학칙개정을 유보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제대로 수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부 측에서 제도개선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세 가지 골자로 나눌 것 같은데, 이대로 의견문 내용을 확정지어도 괜찮은가?

사과.정: 사회과학대학은 동의한다.

총: 저는 9,10분위에 대한 보완책보다는 소득분위와 관계없는 장학금 확대, 보완책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설정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인문.정: 제가 말한 거는 9,10분위 학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장학금이 성적 장학금 밖에 없음. 그러니까 소득분위와 무관한 장학금을 보완을 해야한다라는 말이었는데, 혹시 10분위만 해당하는 장학금을 개선해달라는 얘기로 들릴까봐...

총: 네

인문.정: 그럼 괜찮을 것 같다.

총: 추가의견 없으시면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겠다.

## 2. 2학기 학사운영방식 관련

- 단위별 의견
- 설문조사 시행 관련 논의

총: 2학기 학사운영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자료 한 번 확인 부탁함. 참고 1 말고 2 페이지 뒤에 있는 것 먼저 보시면, 이것이 6월 24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이다.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전면 대면하겠다. 1차 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는다면 일부 과목에 한해서 대면으로 하겠다라는 골자로 구성된 자료다. 참고 1 봐주시면, 첫 번

째 페이지를 보면 타대학 대면수업 운영 현황이다. 전면 대면으로 결정한 서울대가 있고,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는 그런 학교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가 있다. 저희 총장단에서는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를 기준으로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내일 교무 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내일 교무 위원회에서는 2학기 학사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학생대표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전달해주면, 그에 맞게 매뉴얼 구축을 해보겠다는 의견도 전달받은 바가 있다. 그래서 2학기 학사운영 방식은 내일이 아니라, 차기나 차차기 교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희는 7월 8일 학사 정기 협의체 전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전달을 하면, 그것이 교무위원회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따라서 제가 종이를 드렸다. 세로로 된 종이를 드렸는데, 이것이 중운위 공지방에 올려드린 게시글 단과대 대표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을 정리한 파일임. 경경대, 사과대, 인문대, 간호대, 통일공대에서 의견을 내주셨고, 아직 의견 내주시지 않은 단과대 대표자분들이나 의견을 내주셨지만 보충 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하시고 싶은 대표자분들이 계시면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실 설문 조사라고 할 것이 크게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는 것보다 정말 핵심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우선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대면 수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성적 제도,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총: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칸막이가 효과가 있는지?

총: 일단 막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막고 수업을 하려면 학우님들이 오셔야 하니까,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어차피 다 의견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인문대학 학우분들이 쓰시는 강의실이 203관인데, 203관이 강의실은 굉장히 협소한데 강의에 대한 수용인원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저희 단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렇게 된다면, 대형 강의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203관에 대형 강의실이 딱 2개에서 3개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과대 별로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203관의 상황은 그렇고, 학교 측에서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의 사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대충 30-40명 내외의 교과목의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한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이론과 실험 실습으로 나눈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문대학의 경우 대형과도 있고 소형과도 있는데, 소형과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을 듣는 수가 30명 미만이다.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되겠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제로 학교에 나와야하는 수업과 나오지 않아도 되는 수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저희 단과대학 입장입니다.

총: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대형 강의실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 본부에서는 1차적으로 이론과 실험, 실습으로 나눠서 대면 비대면을 결정하려는 것 같다. 경경대의 예를 들자면 한 분반에 100명씩 있으니 30명씩 나눈다고 해도 3개의 강의실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교수님이 한 강의를 가지고 3번씩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론/실습을 나누는 것 같다.

인문.정: 추가적으로 어떤 대학은 50명은 그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50명은 시청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방식은 집에서 듣는 건데 피해가 될 것 같고, 불만이 생길 시 교수님께서 강의를 다시 찍어야한다. 그랬을 때, 수업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서 이런 방식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부총: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시에 온, 오프라인 진행하려면 내부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대학에서만 고려하고 있는 안이고 저희 학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총: 310관에 동영상 강의가 되는 강의실이 4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고려사항에 없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백신접종 추이를 감히 예상하건데 10월 달에는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 생각한다. 8주차까지는 이론, 실험과 실습수업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되, 8주차 이후의 학사 운영 방식은 9월 달쯤에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는 것이 추이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나 싶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부총: 저는 덧붙이자면 설문조사를 할 때,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구분해서 방식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각 기관마다 소규모로 대면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론/실습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할지, 명수대로 나누는 것이 합당할지도 학생 의견까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 더불어서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혼합이 된다면 성적 제도 또한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좋겠다.

부총: 그리고 결다리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총학생회 CS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 만약 2학기 때 학사운영 방식이 변경된다고 했을 때, 졸업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CS를 주신 분께서는 졸업제도는 소급적용하여 연단위로 적용을 해달라, 즉슨 올 해 안에는 학사제도의 변동이 있더라도 졸업인증제를 계속 유보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성적제도와 함께 졸업제도 관련 문제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다.

총: 근데 리더스 포럼 자료를 보시면 일부라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졸업요건은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다. 그 부분이면 올해 한 해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저희 단위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단계별 상황 조사를 했다. 그게 교육부안으로 보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부터 다시 잡아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총: 사실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은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본부에 요구는 할 수는 있다. 현 시점에 맞는 매뉴얼을 재구축해달라 라는 식으로.

간호.정: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총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주차 이후에 전면 대면으로 공통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을 따지자면 그게 사실은 가장 지금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여러 학생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주거문제를 따지자면, 학교에서 8월 초에는 무조건 얘기해줘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나왔었다. 8주차 이후에 바뀔 것 같으면 주거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조금씩 나눠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좀 우려된다.

간호.정: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해야지 나눠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경경.정: 추가적으로 사전에 이야기 되었던 내용 중에 앞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검역소 부분인데 1차 백신 접종을 했다하더라도 완벽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역소 문제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증설할지에 대해 학교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간호.정: 추가질의 드리자면 중앙대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매회 방역을 실시할 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총: 매회 방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간호.정: 매회 대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방역을 해야 될 텐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르면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총: 여기서 말하는 방역의 범주는 “개개인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 하면 일단 일단위로 몇 억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가하다. 검역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1학기 기말고사가 대면으로 실시된 경우가 있었다. 그 당시 큰 건물들의 입구를 통제하고 입구별로 검역한 기억도 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본부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제가 알기로는 전면이 아니라 일부 대면이여서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입구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한 번에 인원이 몰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면 대면 시에 이런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총: 전면 대면이라고 하면 8주차 이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백신을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검역소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주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8월 초에 한학기 학사를 결정하는데에 백신 접종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주문제는 확실히 학교와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

경경.정: 거주문제와 방역문제는 학교 측에 진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그리고 상세적으로 상황별 매뉴얼도 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19가 터지고 전면 대면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대면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체감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총: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구축된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지만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뉴얼을 구축하려 하는 의지는 확인했다.

사과.정: 우선 검역소 관련과 주거 문제에 관련하여 저희도 동의하고 우선 중간고사 전후로 학사 체제가 바뀌는건 반대한다. 저번 사례를 봤을 때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체제에 대하여 발표를 했는데 그때마다 학우들이 혼란을 겪은 것 같아서 7~8월 중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결정된 학사로 가는게 맞을 것 같다. 저는 주거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숙사도 모든 방이 1인실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우들의 주거문제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빠르게 학사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그러면 학교는 중운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학교 비대면 대면 여부가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한건지?

총: 학교 본부는 상관없고 학사 운영 방식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 본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학장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사 운영 방식은 학교 본부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총장단의 기조가 실험 실습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자 하는 것이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

인문.정: 진짜 우려스러운 점은 총장단의 기조가 그런거면 알겠고 저희가 항상 어떤 의견을 내주면 학교측에서 반영을 해줬는지 의문이 들고 총장단이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방역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하는데 사실 학교 측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학교 본부와 총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인문대학도 사과대와 똑같이 한 번에 학사 일정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주를 비대면을 한다면 11월부터 대면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학우분들이 최소 9월 말에는 결정을 해야 할 거고, 10월에는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10월은 시험기간이라 사실상 거주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점을 학교가 생각해야하는데 단순히 대면이라는 기조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가 강력하게 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총: 우선 타 대학을 조사할 필요도 있다. 학교 본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이미 학사 운영 방식이 결정된 대학들이 많다. 저희는 충분히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그러면 매뉴얼 구축이 된 게 없다라고 한게 총장단인지 교무위원회의 말인지?

총: 교무위원회가 내일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고 하였고, 그전에 저희가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교무위원회에서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구축하겠다고 전달해주셨다.

간호.정: 교무위원회란 말인지?

총: 그렇다.

사과.정: 혹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대학들 중에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학사가 바뀌는 대학이 있는지?

총: 그건 모르겠다. 한 학기를 기준인지, 8주차 기준인지, 4주차 기준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다.

경경.정: 경경대도 해당 문제에 질의 드리려고 했다. 거주 문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중간고사 이후에 확실하게 대면을 한다고 말해주면 학우분들께서 거주 문제는 저희가 우려하는 만큼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조금만 더 빨리 대면에 대해서 얘기해준다면 해결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이게 학생들한테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게 한 수업 형식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점으로 백신을 맞아서 대면을 확대한다 느니, 그런 내용이 초기에 한 학기 분량으로 확정하면 중간에 방식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혼란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강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경경.정: 물론 지금 백신에 대하여 결정난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계속 미뤄지는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비대면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중간고사 시점이 돼서야 또 비대면하겠다, 3주 뒤에 말씀드리겠다는 식으로 계속 연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7~8월에 학교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총: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여기서 뭘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문항을 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공유한 것은 각 단위의 개별적 의견으로 하고, 기간에 관한 것들도 설문조사 문항으로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논의가 나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범.정: 저희도 일단 단운위 통해서 나온 의견은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중간고사 이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체육 교육과, 유아 교육과 이런

과들은 시설 사용에 대해 크게 작용을 한다. 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대면이 됐을 때 과방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 문항에 대면, 비대면에 관계없이 필요한 과에 대해서 사용을 허가해도 되는지에 대해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수업 운영 외에도 실습이 정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총: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3월 달에 체육 문화 시설 재개방 관련해서 문화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적이 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나 학교 본부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 자의적으로 재개방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개방 가이드라인을 구축해본 입장에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시다면 교육부 자료를 공유해드리겠다. 단운위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범.정: 공유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총: 네

약학.부: 약학대학 의견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냐.

총: 네

약학.부: 설문에 만약에 학교의 기조가 바뀐다면 최소 얼마의 텀을 두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항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학우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그러면 설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겠는지.

총: 네

인문.정: 저는 일단 경경대가 초안을 잘 짜주신 것 같아서 초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우분들의 주거지 문제에 대한 항목만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통학을 할 수 있는지, 방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부총: 아, 대면 전환 시 방을 구해야 하는 학우분들의 비율을 알고자하는 것인지.

인문.정: 거주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사실 이게 보통 1년 계약하고 6개월의 연장 여부를 물어본다. 사실 중간고사 이후라고 하면 3개월밖에 안 된다. 이 부분도 세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다.

간호.정: 거주지를 조사하자는 의미인지.

인문.정: 거주지를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했을 때 거주지를 구해야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간호.정: 통학 또는 자취를?

인문.정: 네 그렇다.

간호.정: 설문조사 항목 외에 질의인데 혹시 설문조사 시행시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총 : 만들어지자마자 7월 8일 전까지 결과 보고가 되는 시점,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 제가 연락을 받았

는데 7월 5일 교학부처장님께서 갑자기 외부 일정이 생기셔서 7월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 부탁 드린다. 참가 인원은 제가 재조사중에 있다. 제 능력 밖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교학부 총장이 들어오지 말라 할 수 있었는데 교학부총장이 있는게 명분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연기하는 것에 동의 했다. 5일에 하나 8일에 하나 큰 의미는 없다.

간호.정 : 없는데, 5일에 된다고 했을 때 본인도 그 당시에는..

총 : 그 당시에는 일정이 없었겠다. 뭐 본인 입장에서 저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셨겠다 본인 입장에서 는

인문.정 : 설문조사 문항을 좀 정립을 한 다음에 일정까지 정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총 : 제가 봤을 때 대면 비대면 설문조사, 선호 이유 조사하고 특히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점 비대면 시의 문제점 등 그리고 대면 강의 진행 시 진행 방식, 대면 진행 시기, 학사 운영 방식 공지 전 유예기한 등이 있겠다. 거주 문제 까지. 더 논의를 해야 할지? 설문조사 가안을 저희가 만들겠다. 논의를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될 것 같다.

부총 : 그러면 지금 오늘 논의 내용 중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성적 평가 (52:59 재수?) 라던지 마저 기입 해서 초안을 드리도록 하겠다.

통공.정 : 그러면 공대 의견 중 하나가 설문조사 할 때 대면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20,21학번 대상 그리고 나머지 학번 대상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대면을 겪어본 사람과 아예 안 겪어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보는 건 어떨지?

경경.정 : 아예 따로 설문조사를 만들지 말고, 설문조사 항목에 대면의 경험이 있는지, 학번을 넣는 게 낫지 않나? 근데 학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대면의 경험이 있는지가 나올 것 같다. 시험 때만 대면을 한 학우분들도 있고 계절학기 대면을 겪은 학우도 있기 때문이다.

총 : 사실 저희가 말하는 대면이라 하면, 전면 대면, 그러니까 이론 수업도 대면으로 하고 시험도 대면으로 치루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학번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

사과.정 : 계절학기나 시험만 대면으로 하신 학우도 대면으로 참여 하실 수도 있다.

통공.정 : 근데 또 재수, 삼수 생각하면 학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원래 18학번으로 다른 학교에서 대면을 하다가 우리 학교 20학번으로 입학한 경우도 있기에 ..

총 :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학생증 첨부하고, 재수 여부 첨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통공.정 : 그래서 아까

간호.정 : 그냥 19년도 이상..

경경.정 : 아니 전면 대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라고..

총 : 대면 학사를...

부총 : 그러면 둘 다 쓰면 되지 않을까. 병기를 하면 될 것 같다.

간호.정 : 19년도가 마지막 대면 학사 아닌지.

인문.정 : 그러면 차라리 간호대에서 말씀해주신 방안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총 : 일단 저희가 6월 30일에 2분기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희가 7월 1일이나 2일 오후 까지는 가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거친 후 바로 업로드 하여 7월 7일 저녁 전까지 받으면, 4-5일 정도 시간이 있다. 결과 정리는 밤 새면 된다.

간호.정 : 혹시 논의 안건 3번이랑 기타 안건 논의가 양이 많은지. 많으면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는 게 좋을 듯 싶다.

총 : 별로 없다.

사과.정 : 설문조사 혹시 7월 5일까지 완성하셔서, 7월 5일 중운위 회의에서 아예 피드백을 하고 그것을 7월 6일 줌. 근데 제 생각엔 7월 8일 학사 정기 협의체 가기 전까지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총 : 그래서 7일까지 하고..

부총 :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듯 싶다.

부총 : 그러니까 5일 정도는 설문 기간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인문.정 : 단운위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3. 등록금 및 재정정보 관련

기획처 항의방문 예정

- 이후 중운위 대응 논의
- 중운위 내 등록금환불 근거마련

총 : 3번도 금방 끝날 것 같다. 빠르게 진행 하겠다. 3번은 크게 논의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1시에 기획처를 방문했다. 기획처에 방문에서 저희가 송부한 공문 주제와 전학 대회 결의안 일부, 그리고 중운위 입장문 총 네 가지의 문서를 동봉하여 기획처장님께 직접 전달해드렸고, 조만간 답변해 주신다고 한다.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릴지 기한을 설정해야하고 그 기한 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중운위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기한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당시 기획처장이 한 말을 인용을 하자면, 본인은 다 똑같은 것인 줄 알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한을 좀 짧게 잡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인문.정 : 아마 기획처장님 말로는 간담회 때 이미 말했는데 왜 또 하나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좀 ..

간호.정 : 그 말씀 자체가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것이고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이면 입장문 쓰신 것도 봤는데, 거기다가 기획처장이 잘 모른다고 덧붙여서 학교에 다 붙이는 수밖에 없다.

총 : 회신 기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저희는 이미 많은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길게 잡을 필요는 없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하죠. 본인들이 겁나면 빨리 주지 않을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회신 기한을 잡고, 회신이 안 오면 목요일부터 당장 행동에 옮길 행동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릴레이와 연서명은 의미가 없던 것으로 논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정 : 일단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간호대 말씀처럼, 아까 그 입장문이 나름의 중운위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입장, 요구안을 플러스로 해서 중운위의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획처장의 어떠한 이런 것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다.

부총 : 저는 방금 간호대에서 말씀하신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그런 걸 첨부해서 뭔가 자료를 내게 되면, 대외적으로 여기저기 붙이는 것도 좋고 저는 일단 최대한 자료를 상부로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들고 총장단한테 자료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총 : 아니면 일단 오늘 방문한 것은 저희가 내일 중으로 업로드를 하고, 목요일에 대자보를 써서 총장실 비서실에 제출해도 된다. 문 열고 비서실에 제출하고 나오면 된다. 그러면 전달 해주시지 않을까.

인문.정 :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하고 게시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경경.정 : 그리고 저는 그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계속 기획처장님께서서는 간담회를 간담회 때 얘기 했는데 뭘 더 말하냐라고 하셨는데, 간담회는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전체학생대표자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엄연히 다른 요구다. 이걸 계속 간담회 들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저희가 거부당하는 이유가 이미 이야기된 내용인데 왜 계속 들고 오냐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 그 부분은 재정정보 관련된 내용은 학생회가 내용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학교 본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 해주신 대로 최대한 서두에 기술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부총 : 덧붙여서 학교 본부가 지난 재정자료 공개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회피하면서 정보 비공개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거의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행동에서는 해당 내용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호.정 : 그래서 그럼 두 가지인 것이지. 총장단 비서실에 제출 및 게시하는 것.

총 : 글의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오늘 제출한 요구안 플러스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새로 작성, 기획처장 답변, 그리고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라는 것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다.

총: 그리고 중운위에 등록금 환불 관련인데, 의견을 안주신 단과대학이 많았다. 지금 경경대하고 사과대, 인문대만 의견을 주셨다. 그래서 빨리 의견을 주시면 한꺼번에 공문 발행할 수 있으니 의견 남겨 주시고, 의견 없을 시에는 의견 없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에서 회의를 했는데, 관련 의견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미 쓰여져 있었고 두 번째는 대면 학사와 비대면 학사의 강의 평가 자료를 달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듣기로는 비대면이 더 높다고 해서 봐두나 마나 불리한 것 같다. 그래서 쓰지 않았다.

총 : 그럼 그렇게라도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다.

통공.정: 하나만 더 추가하겠다. 비대면 학사 구축하는 데에 들어간 추가 비용이 있나 궁금하다.

총 : 비대면 학사 서버 구축은 지속적인 지출이 아니라 한 번 지급을 한 것이다.

인문.정 : 근데 저희 단과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비대면 학사에서 강의 질 향상은 맞는데, 그게 과연 학교 측 도움이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이 점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경경.정: 다른 단과대도 질의가 있다. 조사항목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 답변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시설유지보수비를 등록금 환불과 연결시켜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이번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때와 시설유지보수비를 비교해보면 현재 학교 측에서 비대면 수업 상황에도 시설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해당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총: 제가 자료를 보았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 몇 천만원 수준이다. 서라벌 또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큼지막한 시설들의 개선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경.정: 그렇다면 시설유지보수비에는 현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비용이 모두 들어가는 건지?

총: 그것도 다 2021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있다.

경경.정: 그렇다면 저희는 이 내용을 지우도록 하겠다.

총: 이것도 최대한 빨리 주시고, 다 작성이 되어야 공문을 전달할 수 있다.

사과.부: 이것도 설문조사 가안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부총: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이다.

인문.정: 이것은 저희가 내부 조사를 하고 가안을 받기로 하였다. 내부 조사항목을 빠르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

총: 맞다. 그래야 저희도 의견 정립이 가능하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겠다.

##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새내기새로배움터 진행 관련 의견 공유

### 2. 단위요구안 작성 관련 의견 공유

총: 새내기새로배움터와 단위요구안 작성은 여러분들끼리 중간점검 차원에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새내기새로배움터와 단위요구안 작성 관련해서 의견이 나온 단위가 있을 경우 공유해주시면 타 단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경경.정: 저희 경경대는 새내기새로배움터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으면 한다.

사과.정: 저희 사과대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숙박 형태, 학교에서 진행, 온라인 진행 이 세가지로 논의를 했는데, 사실 대면 학사 시작이 되어도 확산 추세에 따라 활동 규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자치활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고,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숙박 형태는 무리고 또 숙소 공개 일자 시기를 고려해보아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숙박 형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진행은 이미 3월에 각 학과들과 사회과학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으므로 온라인 진행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현재 예산이 21학번 대상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다. 대면 학사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21학번 대상으로 신입생 환영회와 새터 명목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경.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새내기새로배움터에 명목으로는 아예 진행을 안 하기로 하였다. 이 비용을 축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축제에 더 비용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인문.정: 경경대 회장님께 질문 있다. 축제 원래 비용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해서?

간호.정: 그게 가능한지?

부총: 알아봐야 한다.

경경.정: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부총: 그렇게 한다면 단위 구분되지 않고 새내기 관련된 행사와 이벤트의 통일성이나 적정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새터를 아예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미 3월에 온라인으로 대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대면 학사가 진행되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 축제를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준비하는 중이다. 새터는 아예 하지 않고 다음 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단위요구안은 이미 작성하고 있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새터 진행을 이미 온라인으로 3월에 진행하였으며 사실상 대면으로 진행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저번에 총학생회장님이 의견 내주셨던 총학생회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 단과대도 같은 기간에 진행을 하는 것을 전달해보았다. 저희는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다만 학사 운영 방식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뤄진다는 하에 동의가 있었다. 저희는 진행을 한다면 비대면으로 축제를 하지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대면으로 진행할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학번 대상으로 나온 금액을 전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회의 내용이 있었다.

약대.정: 질문이 있다. 현재 20학번에 대한 예산안이 끝난 것인지?

총: 숙박 형태로 진행을 해야지만 20학번 새내기새로배움터 예산안이 보존될 수 있다.

약대.정: 그렇다면 20학번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21학번만 이렇게 정하는 것인지?

총: 그렇다. 왜냐하면 작년에 새터 대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금액이 등록금 환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학교 본부의 입장은 그러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 형태로 하면 기꺼이 진행해주겠다고 한 것이 이번 학교 본부의 의견이었다.

인문.정: 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것인지?

사범.정: 총학생회 측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였다.

통공.정: 저희는 새터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면 행사에 대한 두가지 의견이 나왔다. 첫번째는 축제를 확대 시키자는 것이었다. 공대 축제가 원래 하루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규모나 방역수칙을 생각해보았을 때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루 만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3일정도 연장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는 만약 축제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작년에 공대는 대운동장을 빌려 일주일 간 한 두개 학과끼리 대면으로 새내기를 불러 동아리 부스라든지 보물찾기 같은 경우로 대면 행사를 기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특정 과만 부르는 방식의 대면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비대면일 경우 만약 축제를 진행할 때 대면과 협업하여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딱히 비대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총: 새터 예산 관련하여 전환 가능성이나 전환 용도에 대해서 물으러 가고 싶은데 한창 저희가 기획처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인문.정: 그렇다면 축제 비용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총: 축제 비용은 받을 수 있다. 최초에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 재작년보다는 감축이 되었을 것이다.

통공.정: 축제 비용은 어디서 빠지는 비용인지?

총: 등록금에서 빠진다.

통공.정: 그것이 아니라 교학지원팀에 말하면 주는 것인지?

총: 각 교학지원팀에 배정된 금액이 있을 것이다. 학생 경비로 빠진 것이 있는데 학생 경비도 항목이 많다. 그 중에 축제가 있는 것이다.

사범.정: 그렇다면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축제 비용도 받고 21학번 대상으로 보존된 금액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총: 만약 새터 보존금이 그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약학.정: 각 단과대마다 교지팀에 문의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인지?

총: 21학번 새터 금액은 제가 가서 기획처에 요구를 할 것이고 애초에 최초에 편성된 축제 예산은 각 단과대 교학지원팀에 여쭙보시면 된다.

간호.정: 그것이 60%정도 감축이 되었다는 학생회 대상 지원금 아닌지?

총: 그 중에 축제가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다.

간호 정: 축제 지원금이란 게 원래 따로 있는 것인지?

총: 학생 경비에 포함이 되어있다. 각 단과대 교학지원팀에 배정되는 학생 경비에 아마 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60%가 축제를 아예 없애버려서 60%인지 아니면 축제 금액에서 60%를 줄이고 다른 것에서 줄여서 전체적으로 60%가 줄어든 것인지는 저도 알지 못한다.

간호.정: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축제 지원금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생 지원금으로 묶인 것이 아니



냐는 것이다.

총: 맞다.

간호.정: 자꾸 축제 지원금이라고 하셔서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간호대는 방학 때 애초에 나왔을 때 새 내기 대상으로 학과 전용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어서 새터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 방학 8월 중에 소규모로 모이게 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2학기 중반에는 다른 단위에서는 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체육대회가 있어 그것 때문에 학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였다. 따라서 따로 새터를 진행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사범.정: 총학생회장님께 질문이 있다. 2학기 학사 진행이 중간고사 이후로 대면이 된다고 하였을 때 축제를 기획하신다면 대면 전에도 기획하실 의향이 있는지?

총: 일단 9월 말로 가안을 잡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아마 전면 대면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이브리드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인문.정: 저는 9월 말이 괜찮을지 의문이다.

총: 9월 말이 최적인 이유는 9월 중순에 중간고사가 있고 10월 말에는 선관위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학생회 집행부에서의 큰 행사 기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9월 말로 설정을 하였다.

간호.정: 저희도 체육대회를 9월 말로 잡았다. 그래서 학사 일정이 중요하다.

총: 10월 말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집행부 분들이 중간고사 때에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하였다.

인문.정: 궁금한 것이 있다. 단과대 별로 60%씩 다 감축이 된 것인데 그럴 때에 이런 게 다...

경경.정: 저희는 축제 관련해서는 2학기 때 진행되기 때문에 보존해달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보존이 되었을지는 아직 모른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다른 부분에서 계속... 감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간호.정: 저희는 그 감축된 비용을 학과 행사에서 쓰려고 하고 있다. 당선되고 바로 쓰는 일이라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로 전달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양해를 조금 구해야 할 것이 있다. 3월 말에 선거 지도 위원회와 홍보물 게시에 관한 내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개정안을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생지원팀이랑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제가 방학 중으로 전달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단위요구안은 언제까지 쓰면 되는지?

총: 제가 일정을 잡고 말씀을 드리겠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예술.정: 저희도 새내기새로배움터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총: 다음주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새내기새로배움터의 숙박 형태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고 대체 행사에 대해서는 중운위 차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사과.정: 아까 논의 안건 2번 학사 운영 방식 관련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7월 5일 중운위 회의 전까지 설문 결과가 나오는 일정이었으면 좋겠다. 중운위 입장이 성립이 되어야 7월 8일 학사정기협의체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 결과가 7월 5일 오후 6시 30분 회의 전까지 나오는 것으로 일정을 당겼으면 좋겠다. 혹시 가능한지?

인문.정: 기존에 주신 일정도 30일이나 1일에 만드셔서 2,3,4일에 받고 하는 것 아니었는지?

총: 1일에서 2일 오후까지 만들고 2일 저녁부터 배포할 예정이었다.

간호.정: 안되면 긴급회의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총: 일단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보겠다.

부총: 아직 확정은 못 드릴 것 같다.

통공.정: 가안을 짜와서 그 가안을 수정을 하고 배포를 해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중운위 회의를 7일로 하든지 다시 잡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총: 알겠다.

통공.정: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문조사가 너무 부실해질 것 같은 걱정이 있다.

총: 알겠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폐회하도록 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